

제1주제

내포문화권 개발의 역사·문화적 의의

오 석 민

(충남역사문화원 전시유물부장)

內浦文化圈 개발의 역사 · 문화적 의의

I. 서론

- 환경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결코 적지 않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에, 근거리이지만 산악에 의하여 사회적 교섭이 차단되고,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이용한 왕래가 용이한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로는 외부와의 교섭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교섭을 강화 또는 차단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 내포는 금북정맥(錦北正脈)에 의하여 공주 등지와 차단된 반면, 아산만과 경기만을 건너면 한양과 쉽게 교통할 수 있는 지방이었다. 그리고 물자 수송을 뱃길에 의존하였던 20세기 초 · 중반까지도 삼남의 물산이 서울로 운송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역을 끼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볼 때, 특히 서북면 육로가 막혔을 때는 해양을 통한 중국과의 교섭창구가 되기도 하였다. 내포지방에 산재한 문화유산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철도와 신작도로 대표되는 육로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전쟁 이후 한강 수운이 막히면서 내포 지방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벽지로 변하였다. 인체에 있어서 혈액과도 같은 교통로의 발전이 지체된 것이다.
- 최근 한국에서 교통의 발전은 사회 ·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교통체계의 개선에 의하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방비 상태로 훼손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불편한 교통 때문에 관광객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옛 모습을 간직하기도 했다. 때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서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그 가운데 내포 지방의 문화유산은 접근성이 제한되었던 관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고, 이제 안면도는 내포 관광산업의 변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문화재 정비를 축으로 하여, 일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과 함께 관광자원화를 모색하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에 속한다.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문화유산에 대한 조치가 개발의 논리에 밀렸던 다른 사례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 연구에도 미치지 못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고, 소관 부처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 중요한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또한 문제라 할 것이며, 일부 앞서서 추진되었던 사업과의 연계가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내포 지방의 지정학적 특징, 문화유산의 분포 양상,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또한 후속되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전통시대의 도로체계

1. 전통시대 육로와 내포지방

- 전통시대 한반도는 동남쪽으로 일본과, 서북쪽으로는 중국과 교섭하였다. 여기에 여진 등 만주족과 쟁패하던 동북 방면, 전라도를 경유하여 제주도와 연결되는 서남 방면의 길을 고려하면, 수도가 있었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망은 '×자형'의 모양을 갖춘다. 그리고 '×자형'의 도로체계는 개경에 도읍을 정한 고려시대 이후 최근까지 약 1,000년 간 크게 변치 않았던 특징이다.
- 육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대외 교섭로, 특히 중국을 연결하는 육로가 중시되었음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상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본 편향으로 흘러갔으며, 특히 남북이 분단된 이후는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이야말로 20세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변하는 표상이었다.
-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동남쪽 방면의 도로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죽령(竹嶺)을 넘나들었으나, 고려시대에는 계립령(雞立嶺)으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새재[鳥嶺]로 이동하였다.¹⁾ 고갯길이 이동하였다고는 하나, 공히 충주를 경유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이 때문에 충주가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되었으며, 충청 감영이 자리잡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크게 남한강을 따라 간다.
- 그러나 추풍령을 넘는 경우, 상황이 일변하게 된다. 임진왜란 이후 경상감영(慶尙監營)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영남으로 향하는 길은 한양

1) 최영준, 1990,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민족문화연구총서 24), p.p 41~42.

수원-청주-추풍령-대구를 경유하게 되었다. 충주와 상주의 교통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변한 영남대로는 남한강과는 거의 무관하며, 서해로 빠지는 하천들을 계속 건너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호남대로와 마찬가지로, 또한 호남대로에 점차 접근하게 된다.

- 영남대로와는 달리 호남대로는 차령을 넘어서 공주를 경유하는 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직산 고을을 통하여 충청도로 넘어선 후 천안-차령-공주-경천-은진을 거쳐 여산 고을에 이르면 전라도 땅이 된다. 그러나 일제시대 신작로를 개통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영남으로 가는 국도와의 분기점도 조치원으로 변동하였다. 내포는 국가의 기간도로망에서 더욱 멀어졌고, 이는 옛 충청도의 중심지였던 공주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를 대신하여 대전이라는 신흥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편 이 길은 차령에서 서남쪽으로 비슷하게 뻗은 산줄기와 거의 평행하다. 호남대로와 평행하게 뻗은 그 산줄기를 전통시대에는 금북정맥(錦北正脈)이라 불렀다. 금강 북쪽의 큰 산줄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산악은 과거부터 사회적 교섭의 장애물이었다. 최근 토목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간선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악을 경계로 생활권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구역 또한 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내포는 금북정맥에 의하여 호남대로라는 주 도로에서 격리된 지역이었다. 예산과 공주 유구를 연결하는 차동 고개, 청양과 정산을 연결하는 대터 고개 등 협로를 거치지 않으면 충청도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듯 산악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세를 이루었던 까닭에, 내포 지방은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도 피해가 크지 않은 승지(勝地)로 평가되었다. 『택리지』의 아래 기록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가야산(伽倻山)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內浦)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 한편 20세기 접어들 무렵까지도 뱃길은 육로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 내포 지방의 경우, 해로와 강로(江路)를 고려하면 고립된 지역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진다. 아산만과 경기만을 건넌 후 한강을 건너면 바로 한양에 이르고,²⁾ 삼교천과 무한천을 이용하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선박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대 물자의 유통이 수로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서울의 큰 집안에서 내포의 농장(農庄)을 경영하였던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택리지』에는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여러 읍과 이웃하였고 뱃길이 편리하여 서울과 가까운 까닭에, 서울 사대부 집은 모두 이곳을 통하여 재화(財貨)를 운수하는 이익을 힘입는다. 비록 깊은 산과 큰 골짜기는 없으나, 바다 모퉁이에 궁벽한 지역이므로 난리가 당초 들지 않아 가장 복지(福地)라 일컫는다.³⁾

2. 전통시대 수운(水運)과 내포지방

- 전통시대 뱃길은 지금으로 치면 산업도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도로망이 발달하지 못하고, 교통수단 또한 변변치 못했던 20세기까지 대량의 물자는 대부분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

2) 고려시대라면 개경이 된다.

3) 忠淸則保寧青蘼洞洪州廣川海美武陵洞藍浦花溪 俱多世居富厚者 且隣比諸邑海道使近 故京城士大夫 皆仰其轉輸之利 雖無深山巨谷 以海隅地僻 兵戈初不入 故最稱福地. 『택리지』卜居總論 山水條.

표적인 사례가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세곡(稅穀)이다. 연안의 고을[海郡]에서는 각 고을에 소속된 해안가 창고[海倉]에서 바다를 통하여, 내륙의 고을[山郡]은 육로를 이용하여 바다 또는 강변에 위치한 조세창으로 옮긴 후, 모두 합하여 서울의 창고[京倉]로 운송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할 경우 내포의 바다는 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삼남의 세곡이 모두 운송되는 길목이 되었다.

- 그런데 바다와 강의 항해 조건은 서로 달랐다. 강에서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고, 따라서 배의 폭이 좁은 편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다에서는 풍랑을 이겨야 되었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이 넓었다. 폭이 좁은 강배는 바다에서 전복되기 쉽고, 폭이 넓은 바닷배는 강에서 거슬러 오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밀물 때 조수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에서 바닷 배로 운송한 화물을 강배로 (또는 반대로) 옮겨 실었다. 바로 그러한 지점에 해산물과 육지의 산물이 교차하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 바다로 돌출된 지형을 이루는 내포지방은 곳곳에 포구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내륙으로 인식되는 지점까지도 삼교천과 무한천 수로를 이용하여 바닷배가 왕래하였다. 보통 바닷배는 무한천에서는 신례원, 삼교천에서는 구만포까지 왕래하였고, 그 지천(支川)에서도 남원포·부리포 등이 포구가 곳곳에 산재하였다.⁴⁾ 내포지방은 이러한 포구를 통하여 한양이라는 최대 거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내포지방은 과거 연장된 근교(近郊)⁵⁾로도 볼 수 있다.⁶⁾

4) 삼교천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 그 중하류 주민들은 인접한 하천을 바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바닷가에 연한 지역 주민은 역세다고 인식되었으며, 충청도에서도 내포 주민들이 역센 기질을 지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5) 郊는 ‘성밖’을 뜻하는 단어로 周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國都에서 거리 50리 이내를 近郊, 100리까지를 遠郊라 하였다. 南郊에서는 동지 때 하늘에, 北郊에서는 하지 때 땅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6) 바다를 통해서만 황해도 연변 고을이 마한가지었고, 한강의 경우 여주·이천, 나아가서 원주까지도 서울과의 물자 유통은 원활하였다.

- 해양 방어의 측면에서도 충남 서해안은 막바지 저지선에 가까웠다. 북으로는 장산곶 일원, 남으로는 태안반도 일원이 뚫리면, 곧바로 강화도와 교동도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까닭에 태안반도 등과 강화도 등의 관계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다.⁷⁾
- 내포지방은 중국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열린 형세를 이루었다. 바다를 향하여 열린 지세를 형성하는 내포지방의 특성은 태안반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해저에 암초가 발달하여 연안 항로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으나, 바다로 돌출된 탓에 원양을 항해할 때에는 손쉬운 도착점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북방이 막혀 남조와의 교섭이 중요했을 때에는 태안반도와 같은 곳은 바닷길의 기착점이 되었다. 내포지방에 있어서 백제시대 내포불교의 전통, 조선 말 내포교회의 형성 등은 그러한 산물들이었다. 내포불교는 중국 남조의 영향에 속하며, 내포교회는 서북방면의 육로가 막힌 이후 마카오를 통한 천주교의 전래를 말해 주는 유산들이다.

7) 이와 관련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忠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황간(黃澗)·영동(永同)·추풍령(秋風嶺) 등지의 파수하는 형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錦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6일 辛卯條>; ‘… 유성룡이 아뢰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 하였다. …’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1596) 11월 26일 戊午條>; 왕이 <시사청에 나아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전(尹孝全)을 인견하였다. …… 윤효전이 아뢰기를, “… 공주(公州)·홍주(洪州)·청주(淸州) 세 고을은 양남(兩南)의 요충지이며, 게다가 홍주는 양포(兩浦)의 인후(咽喉)인데, …” 하였다. … 『광해군일기』 권80, 광해군 6년(1614) 7월 17일 丁卯條. 육로를 통한 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주와 청주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에 유성룡과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제기하고 있다. 『만기요람』 軍政編 4, 關防 忠淸道條 柳成龍所論; 同 金堉所論.

3. 20세기 교통체계의 변화와 내포지방의 쇠락

- 내포의 쇠락은 한국에 있어서의 수운(水運)의 쇠퇴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일제 침략 이후 '신작로' 개설과 철도 부설 등으로 육상교통이 발달하였다. 내포지방의 경우, 1931년 장항선이 경남선(京南線)이라는 이름의 사설철도로 개통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한강 하구가 막히면서 국내 수운은 보조적 수단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 그러나 국가 발전의 축이 경부선으로 집중되면서 장항선의 개량은 늦추어졌고, 도로망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내포지방에서는 철도나 도로에 비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항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산·당진·태안 지방에서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무한천과 삼교천 중류를 우회하는 먼길을 가야했으며, 따라서 1979년 삼교천방조제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주로 선박을 이용하였다. 기선으로 직접 인천을 출입하기도 했고,⁸⁾ 아니면 한진 나루 등에서 아산만을 건너 수원을 경유하였다.
-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눈부신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내포지방이 소외되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교통정책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육상교통의 발전은 지체되고, 수운 또한 급격하게 쇠퇴하는 가운데 내포는 낙후된 채로 남아 있었다. '한국 농촌을 그리려면 내포가 좋다.'는 한 예술가의 평가는 단순히 칭찬으로 들을 수는 없다. 소위 '근대화'에서 밀려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내포지방 문화유산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거나, 최소한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곧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말과 통한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내포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8) 인천에 또 하나의 내포가 형성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 군산 또한 내포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며, 대체로 관장목이라는 험로가 위치한 안흥항이 인천 및 군산과 교통하는 경계선이었다고 한다.

4. 서해안시대 개막의 의의

- 20세기 이후 수운이 쇠퇴하고, 그를 대신할 만한 육상교통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충청도의 중심지였던 공주마저 호남으로 통하는 교통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잃으면서, 내포는 그야말로 서울과 가까운 벽지로 변모하였다. 조선시대 서울의 큰 가문에서 앞다투면서 농장(農庄)을 경영하던 곳이 일변하여 오지가 된 것이다.
- 그러한 상황은 다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내포 전역이 '수도권'에서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다가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 주민이 안면도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도 한다. 내포가 다시 서울의 근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서해안시대'라는 구호는 중국과의 교역 등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이미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산만 전체가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되고,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과거 갯마을의 정취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 최근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직전에 그나마 '지표조사', '구제발굴' 등의 이름으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고, 소규모 건축·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들이 속수무책으로 훼손 또는 망실되곤 하였다. 이에 반하여 내포지방은 서해안고속도로라는 사회기반시설과 약간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문화유산 정비사업과 관광자원화의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Ⅲ. 내포지방의 문화유산

1. 교통과 해방(海防) 관련 유적

- 조선시대까지 대규모의 물자는 거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을 수도로 정한 이후, 서해, 특히 경기만은 많은 물자가 집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 추세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고,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화·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중앙정부 또는 서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산의 많은 부분은 삼남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남에서 서울 경강(京江)으로 향하는 뱃길은 위정자들의 큰 관심이 되었다. 현 충청남도 서해안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위치한 해양 교통의 요충이었다.
- 이러한 연유로 서해안 곳곳에는 교통과 군사적 목적을 겸하는 국가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박의 운행을 감시하고 바다를 통하여 접근하는 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바다 쪽으로 돌출한 지형을 선택하여야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여야 하고, 또한 군사시설 자체가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방시설은 돌출된 반도 지형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영(水營)과 같은 거점 시설은 큰 바다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진성(鎭城)들은 반도 끝 부분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실 반도로 돌출한 해역은 암초가 발달하여 해난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찰이나 신당(神堂)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대상이다.
- 조선 후기 충남 서해의 항로는 사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뱃길은 전라도 군산을 지난 후 마량진-원산도-안면도-안흥진-소근진-황금도를 따르는 연안을 따랐다. 이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적들은 다음의 < 표 1 >과 같다.

< 표 1 > 내포 연안 교통 및 海防 관련 유적

유적 명칭	현 위치	비 고
石串浦	홍성 결성면 성호리 (속칭 '돌곶이')	별칭 : 성호나루, 천북나루. 각 道의 漕船이 돌아와서 정박하는 곳임 <『만기요람』>
母山堂浦	홍성 서부면 신리	태종 8년 결성현감 김자가 왜구를 물리침 <『만기요람』>
水軍節度使營	보령 오천면 소성리	도 지정 기념물 제9호. 명승지로 꼽힘 <『택리지』, 『만기요람』>
高巒梁	보령 주포면 고정리	
元山鎭	보령 오천면 원산도	군량 창고가 있는 곳으로, 水營의 處候가 겨울과 봄에 들어왔다가 여름에 돌아감 <『만기요람』>
要兒梁	태안 고남면 고남리 '영목'	水營이 있었음 <『세종실록지리지』>
安興城	태안 근흥면 정죽리	도 지정 기념물 제11호. 1905년 鎭을 폐지한 후, 그 자재로 동학혁명 때 소실된 태안군청 및 부속건물을 복구하였음<『서산군지』(1927)>
所斤鎭城	태안 소원면 소근리 2구	도 지정 기념물 제93호.
波只島營	서산 팔봉면 파지도리	후에 서산 팔봉면 호리로 옮김
平薪鎭	서산 대산읍 화곡리삼길포	황금산(서산 대산읍 독곶리)에서 망일산(대산읍 대산리 속칭 '구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전하였음<『충청도읍지』(영조-헌종 연간) '平薪鎭誌, 沿革條>
唐津浦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문화재자료 제365호. 조선 후기 폐지됨
難知島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	조선 후기 폐지됨. 뱃길에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말 의병들이 봉기한 곳임.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동학혁명 때 폐퇴한 농민군이 이곳에서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1905년 홍주의병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며, 최근 1908년 당시 의병과 일본경찰의 전투를 벌였던 기록이 발견되었음. 1987년부터 '소난지의병항쟁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
大津浦	당진 송악면 한진리 한진나루	조선초 大津萬戶가 설치되었음. 1980년경까지 내포주민들이 서울을 출입할 때 이용하였던 대표적인 나루임. 현 나룻터는 나룻배가 汽船으로 바뀐 후에 옮긴 곳으로, 원래는 서북쪽 절벽 아래에 있었다고 하고, 그 주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짐
영웅바위	당진 송악면 한진리 앞바다	뱃사람들이 지난 때 항을 피워 기도하므로, 賽神이라 함(西連大海 遇風波濤極險 中流有巖如峯 高六七十丈 嶋巖卓絶 號賽神令公舟人遇此 必香火祈禱 故號賽神 而令公爲稱也 賽神 今說爲宰神) 이외에도 토정 이지함, 또는 정일전쟁과 관련된 전설이 있음 <『만기요람』>

- 한편 해로상에서는 협로가 있어서 난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해역이 경기만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었던 황해도 의 장산곶과 충청도 태안의 안흥량, 그리고 한강 하구에 위치한 경기 강화도의 손돌목 등이었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삼남의 세곡과 아울러, 서울 권문세가의 농장에서 거둔 수입을 운반

하는 경로상에 있었던 안홍량과 손돌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⁹⁾ 내포의 안홍량은 신진도(新津島)와 마도(馬島)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을 말한다. 안홍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¹⁰⁾ 따라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려서 건넜다고 하며,¹¹⁾ 최근까지도 이 해역을 경계로 북쪽 어촌은 주로 인천, 남쪽은 군산 또는 강경을 출입하였다고 한다.

- 손돌목과 안홍량의 협로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운하 굴착공사였다. 손돌목의 경우, 강화해협의 협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무신정권 하에서 최이(崔怡)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시대 김안로(金安老, 1481~1537)에 의하여 김포운하를 굴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²⁾
- 안홍량 지역 운하 건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다.¹³⁾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 지점의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운하공사는 고려 인종 12년(1134)이다. 인종은 내시(內侍) 정습명(鄭襲明)을 파견하여 인근 군졸(郡卒) 수천 명을 동

9) 忠清道內浦泰安西有安興串 亦如長山之斗入於海 海中雙嶼起 而舟從兩石間 過去船人甚畏之 惟此南北二串 屹然相對於海中 而舟行到此多敗 然全羅慶尙忠清三道 則賦稅皆漕至京師 故水道皆置漕軍 歲內驛次輸運 且京城諸宮家及士大夫家 無不置庄土於三南 皆仰其轉輸 船人水路慣熟 而商賈亦多視安興 如履門庭矣.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10) 관수각은 관장목[冠丈項 또는 關障項]이라고도 했다. 1872년 간행된 「泰安地圖」(규 10422)에는 관장목이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섬[小島]과 암초[大礁] 사이의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한편 지평산에 있는 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찰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佛宇條. 주민들과의 면접에 따르면, 관장목과 소원면 모항리 속칭 '유리곶'에 이르는 해역의 물살이 급하다고 한다.

11)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주민들은 밀물 때에는 '물이 어뽕뽕하여 배를 저을 수 있다.'고 말한다.

12)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金浦掘浦條.

13) 운하 건설의 역사적 연혁에 대해서는 이종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원하여 10여 리를 파다가 도중에 중단하였다.¹⁴⁾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는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종실(宗室) 왕강(王康)의 논의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수에 밀려온 토사로 매꾸어지면서 다시 실패하였다. 고려조에 약 10리 정도를 굴착하고 남겨진 공사는 조선조의 사업이 된다.¹⁵⁾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이 심한 가운데에도, 태조조에 최유경(崔有慶)과 남은(南閔)을 현지에 파견하여 살피게 한 바가 있었고,¹⁶⁾ 태종조에 마침내 하륜(河崙)의 발의로, 갑문식(閘門式) 운하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군민 5,0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다.¹⁷⁾

- 태종조에 완공된 운하는 남북의 고지대 5개소에 계단식의 저수지를 축조한 방식이었다. 즉 천수만 방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 끝 지점에 길이 270척(尺), 너비 130척, 깊이 6척의 연못[鑿池]을 만들어 7~8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1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내방축(南內防築), 그리고 길이 47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방축(南防築)을 쌓았다. 가로림만 방향에도 역시 길이 104척, 너비 62척, 깊이 5척의 연못을 만들어 3~4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2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북방축(北防築)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방향의 연못으로부터 천수만쪽으로는 길이 2,290척, 너비 130척, 가로림만쪽으로는 길이 925척, 너비 50척, 깊이 3척의 물길을 내어 고려조에 완공된 수로[水渠]와 연결시켰던 것이다.¹⁸⁾ 그러나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불과 150석(石)을 실을 수 있는 소선(小船)인 관계로, 500석을 싣는 조선(漕船)의 짐을 옮겨 실

14) 「고려사」 권16, 世家 仁宗 12년 秋7월.

15) 「고려사」 권116, 列傳 29, 王康條;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秋7月條;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山川條. 이종영이 지적하였듯이, 고려 예종(睿宗)과 숙종(肅宗) 때에도 굴포운하 개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在前朝睿王肅王 及乎叔世 皆動民疏鑿 夫見其效.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14일 庚申條.

16) 이 당시에는 암반층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었다.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6월 戊辰條; 同 권12, 태조 6년 10월 乙酉條; 同 乙未條.

17)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18)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고, 더욱이 천수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漕船)이 운하까지 도달할 수 없었으며, 운하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¹⁹⁾

- 굴포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차선택으로 강구된 것이 의항운하 건설이었다. 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연안에는 험한 수로 세 곳이 있었는데, 소원면의 잘룩한 부분, 즉 의항리와 모항리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면 그 해역을 피할 수 있었다.
- 의항운하 건설 논의는 중종 16년(1521)에 시작되었다. 김전(金銓)과 남곤(南袞)이 굴포운하 건설을 다시 제기한 상황에서, 현지를 답사한 고형산(高荊山)이²⁰⁾ 오히려 안흥량 부근 의항(蟻項, 속명 개미목)²¹⁾에 운하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고, 호조에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중종

19) 이 후에도 굴포운하에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곧 바로 하물은 운하의 대폭적인 개축을 청하기도 했다.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8월 丁未條; 同 丙辰條; 同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忠淸道都觀察使 李安愚의 비판 등에 부딪쳐서 결정을 못 내렸고, 공사는 중단한 후 이듬해에 태종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막상 논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태종 14년 8월에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敗沒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시 하물이 운하 공사의 재개를 발의하였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甲辰條. 태종이 한 때 태안의 治所였던 굴포운하 부근 尊城鎭을 방문했던 길에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丁卯條. 그러나 이 역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세조조였다. 안흥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조 7년 좌의정 신숙주의 주장을 좇아, 그를 忠淸道都觀察使로 하여, 현지를 살펴보게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 7월 丁巳條; 同 8월 甲申條. 이 공사는 태종 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나, 계속 수로가 매워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條;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泰安縣 山川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安興掘浦條.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사 책임을 맡았던 신숙주의 시(詩)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굴포운하 건설은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8월 癸巳條; 同 9월 戊戌條; 同 9월 乙巳條; 同 권16, 현종 10년 정월 甲辰條; 『송정원일기』 제212책 현종 10년 정월 초6일 庚子條; 同 초10일 甲辰條.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굴포운하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좌의정 許積 등이 반대 의견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결국 면밀한 검토 끝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얕은 갯벌 때문에 건설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신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육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己亥條.

21) 이종영에 의하면, 의항운하의 위치는 소원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국수봉과 대소산(大小山) 사이의 수유동(水陰洞, 속칭 무내미) 협곡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淸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p.111.

이 재가를 하게 되었다.²²⁾ 공사는 이듬해 수군(水軍) 약 3,000명을 동원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사는 4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²³⁾ 그리고 중종 30년(1535)에 다시 김안로(金安老)가 굴포운하의 건을 제기하였고,²⁴⁾ 굴포와 의항의 득실을 재검토한 후 의항운하 공사가 재개되었다.²⁵⁾

- 당시 보고에 의하면²⁶⁾ 의항운하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안흥량의 위험한 4곳 가운데 3곳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지 답사에 의한 보고에 따라서 15~50세의 승려 약 5,000명을 동원하였고, 그 보상으로 호패(號牌)를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공사는 중종 3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5개월만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흙으로 메워져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²⁷⁾

-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본래 안면도는 남면과 연속되어 꽃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조선 인조조에 태안의 아전 방경잠(房景岑)²⁸⁾이 충청감영에 진정하여²⁹⁾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어서 운하를 완성하였다.³⁰⁾ 그 결과 안면도의 내해

22)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23)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6월 己亥條.

24) 「중종실록」 권80, 중종 30년 8월 己亥條.

25) 이와 관계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同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同 己卯條; 同 11월 戊寅條; 同 권83, 중종 32년 2월 丁巳條; 同 권84, 중종 32년 4월 甲寅條; 同 乙卯條; 同 권85, 32년 7월 甲午條; 同 10월 甲戌條; 同 권 88, 중종 33년 9월 丁酉條; 同 戊戌條.

26)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27)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27일 丁酉條. 현재까지 의항운하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해동지도」 등의 관찬 지도에 의하면 의항운하를 경유하는 항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무너진 시설은 복구하는 법령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의항운하는 조선후기까지 부분적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8) 「만기요람」에 의하면, 泰安郡吏房景齡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29) 안면도의 역사수도를 굴착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충청감사 김육(金堉)이 주도했다는 설과 영의정 김유(金瑬)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김육은 인조 16년(1638) 6월 25일에 충청감사로 임명되었다가 2년 후 인조 18년 3월 14일에 좌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丙辰條; 同 권40, 인조 18년 3월 乙未條.

30) 토정 이지함은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뒷줄기를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서산군지」(1927) 古蹟條.

(內海)인 적돌강의 배가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안면도를 도는 200여 리의 뱃길을 단축하였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두 운하가 완공된 결과, 태안반도를 경유하는 조운로는 ① 안면외해, 그리고 ② 안면내해[천수만] - 백사수도 - 의항운하로 이원화되었다. 내해를 이용하는 경우 외해의 거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 그러나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뚫는 운하가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뱃길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다. 이러한 파선(破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선택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를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세조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조창(漕倉) 건설은³¹⁾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 10년 3월에 착공되었다. 안민창사목(安民倉事目)³²⁾으로 구체화된 육운(陸運) 방식은 얼마 간 계속되었으나, 갯벌이 발달하고, 운반을 위하여 많은 민력(民力)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래 가지는 못한 듯하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된 운하 유적의 위치는 아래의 < 표 2 >와 같다.

< 표 2 > 내포 운하 관련 유적 현황

운하 유적	현 위치
泰安漕渠	태안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 팔봉면 어송리·태장리 경계
蟻項掘浦	태안 소원면 의항리와 송현리 사이
白砂水道	태안 안면읍과 남면 경계

도정 이지함은 배를 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윤곡전서」 권30, 만력 6년(1578) 7月條. 그런 때문인지 서해안 곳곳에는 도정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31) 「세조실록」 권1, 세조 원년 윤6월 癸酉條.

32) 「비변사등록」 제28책, 현종 10년 2월 癸10日條.

2. 금산(禁山)과 목마장 관련 유적

-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송림지대로 황해도 장산곶 및 전라도 변산과 함께 안면도가 유명하였다.³³⁾ 금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을 터이고, 그 구체적인 지점을 모두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내역은 『만기요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³⁴⁾ 그 현황은 다음의 < 표 3 >과 같다.

< 표 3 > 조선후기 禁山 현황

지 역		封 山	黃 鵬	松 田	계
공 충 도	泰安	20			73
	洪州	2			
	瑞山	51			
전 라 도		142	3		145
경 상 도		65	14	264	343
황 해 도		2			2
강 원 도			43		43
함 경 도				29	29
계		282	60	293	635

- 그런데 『만기요람』에는 각도의 봉산(封山) 현황에 바로 뒤이어서, 그 가운데 유명한 송산(松山)을 기록하고 있다.³⁵⁾ 호서의 안면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변산(邊山)·완도(莞島)·고돌산(古突山)·팔영산(八影山)·금오도(金鰲島)·절이도(折爾島), 영남의 남해와 거제, 해서의 순

33) 안면도는 세종 연간에 이미 봉산으로 정해진 듯하다.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34)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條.

35)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著名松山條.

위(巡威)·장산(長山), 관동의 태백산·오대산·설악산, 관북의 칠보산 등을 품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백두대간의 산악 외에는, 모두 서·남해안의 섬들이다. 이 또한 뱃길을 이용한 운송의 편리함 때문이었다. 태안이나 서산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거니와, 충청도의 많은 도서를 관할했던 홍주목에 봉산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관용목재로 사용하는 황장목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조선후기 전선(戰船), 조선(漕船), 강화에서 임금이 타는 정자선(亭子船), 운석선(運石船) 등의 선재(船材)는 물론이요, 목재까지도 비변사에서 직접 벌채하여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³⁶⁾ 호서에서는 선박을 만드는 목재는 대부분 안면도에서 많이 조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아산현감이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호조를 거쳐 비변사에서 수영(水營)에 관문(關文)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³⁷⁾ 이에 따르면 아산현감이 조선(漕船)의 건조를 맡고³⁸⁾ 수영(水營)에서 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아산의 공세곶은 충청도 대부분 군현의 세곡을 운송하는 곳이었으며, 안면도의 송림은 수영(水營)에서 관할했기 때문이다.³⁹⁾
- 이러한 금송정책으로 송림이 우거졌던 안면도는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혼란기에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면 먹고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막상 조선조에도 소나무를 베어 소금을 굽기 위한 장작으로 쓰려는 염한이[鹽漢] 또는 경작지를 확보하려는 농민과 우거진 송림을 보존하여 목재로 쓰려했던 정부 사이에서는 숨박꼭질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금산(禁山)까지도 절수(折受)받으려는 궁방(宮房) 등의 노림수가 있었으니, 안면도 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36) 『만기요람』 軍政編 1, 備邊司 所掌事目 松政條.

37)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船材漕復米布退船條.

38) 『정조실록』 권 42, 정조 19년 정월 7일 庚寅條.

39)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7월 15일조의 湖西水營所管 安眠島培養船材事目.

40)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8월 3일 丁未條;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1일 戊戌條. 숙종 3년의 논의는 明安公主房에서 절수받으려 했던 일을 말하며, 영조 6년의 논의는 司圃署의 절수 논의를 말한다. 『비변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 궁방 등에서 안면도의 땅을 허급(許給)받으려 했던 것은 경작할 토지를 확보할 목적도 있었으나,⁴¹⁾ 오히려 풍부한 산림을 이용한 염밭[鹽田] 경영에 있었던 듯하다. 20세기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도입된 이후에도, 거의 1960년경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염법(煮鹽法)에 의하여 소금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송림이 우거지고 갯벌이 발달한 안면도는 소금가마[鹽盆]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 이런 까닭에 안면도로 몰래 잠입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국가에서는 엄격한 주민을 배출하는 등 금송(禁松) 조치를 취하여 송림 보호에 노력하였다.⁴²⁾ 그러나 생계를 도모하려는 유민(流民)이나 막대한 이익을 꾀하는 궁방(宮房) 등의 세력가는 물론이요, 국가에서도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염분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절충한 조치가 잡목 또는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風落松]를 매각하거나 자염용(煮鹽用)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⁴³⁾ 그리고 정조 16년 충청도 기근 때에는, 구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의 감독 아래 민간이 소금을 굽는 일을 허락하기도 하였다.⁴⁴⁾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산과 태안 일원의 송림이 우거진 독특한 경관은 위와 같은 금송정책(禁松政策)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다. 그런데 현재 안면도 외에 금산으로 관리되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조선 말 이후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옛 경관을 유지하는 곳도 많지 않다.

숙종 12년 9월 14일조.

41) 水營에서 송림을 看養하기 위하여 파견한 山直의 경우는 경작할 토지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숙종 3년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토지 30결의 경작을 허가하였으나, 암암리에 그 면적이 확대되었던 듯하다. 『비변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42)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16일 辛巳條; 同 권6, 세조 3년 2월 25일 己未條; 『선조실록』 권19, 선조 18년 4월 29일 庚午條;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11월 22일 辛巳條;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29일 丁亥條.

43)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17일 辛巳條;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정월 10일 戊辰條;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7월 1일 己卯條.

44)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2월 26일 庚寅條.

- 국마장 또한 서·남해안에 집중 설치되었다. 선조 중앙정부에서는 원(元)나라의 직영목장이었던 제주도의 예에 따라 전국 각지에 국마장(國馬場)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마장은 ① 겨울철에도 방목(放牧)할 수 있게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또한 물과 풀이 풍부하고, ② 비상시에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가까우며, ③ 맹수가 출몰하지 않고, 또한 말이 산림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서·남해안의 도서(島嶼)가 대거 국마장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서울과 가깝고 섬과 굿(串)이 발달한 내포 일원도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 태안반도에 설치되었던 국마장 현황은 효종조(孝宗朝) 허목(許穆)이 사복시(司僕寺) 제조(提調)로 있을 당시 만든 「목장지도(牧場地圖)」⁴⁵⁾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각도의 목장 총수(總數)는 제주목장(濟州牧場)을 합하여 138소(所)였는데, 대부분 폐지되고 53처(處)만이 설장(設場)하고 있었다. 국마(國馬)의 수는 총 20,213필(雄馬6,939필, 雌馬 13,274필)로서 5,178명의 목자(牧子)가 돌보고 있었다. 그 중 공청도(公淸道)에는 4읍(邑)에 10목장이 있었고, 설장(設場)한 곳은 3처(處)였으며, 총 613필(雄馬167필)의 마필을 705명의 목자(牧子)가 사육하였다. 그 마필과 목자의 수가 각각 3%와 13.6%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수의 마필을 사육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목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탓도 있었으나,⁴⁶⁾ 임진왜란 이후에 군제(軍制)가 다시 바뀌면서 많은 수의 국마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효종조(孝宗朝)의 공청도 국마장 현황은 아래의 < 표 4 >와 같다.

45) 「목장지도(牧場地圖)」 국립중앙중앙도서관 古20650.

46) 제주도의 목장에서는 1,386명(26.8%)의 목자가 총 12,821필(63.4%)의 말을 사육하였다. 제주도 목장을 제외했을 때에는 공청도의 마필과 목자의 비율은 각각 8.3%와 18.6%를 차지한다.

< 표 4 > 조선후기 충청도의 국마장 현황

郡縣名	地名	규모	위치	馬匹數	牧子	비고
沔川	倉宅串	東西6里 南北20里 周廻50里	在郡北35里	雌雄竝23匹	60名	
瑞山	大山串	東西10里 南北35里 周廻90里	在郡西北	雌雄竝330匹	488名	(영조조 폐지)(1)
	興陽串	周廻60里				廢止
泰安	梨山串(2)	東西5里 南北30里 周廻60里	在郡北42里	雌雄竝260匹	157名	(正宗朝 폐지)(3)
	智靈山串	周廻30里				廢止
	薪串		在郡北29里			廢止
	禿津島		在郡北洋中			廢止
	安面串(4)					東陽尉 折受處
	大小山串		在郡西25里			廢止
洪州	元山島	東西10里 南北5里 周廻47里	在州西南洋中			移給安典鎭 水營移屬

(1) :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묘역이 있는 관계로 절수되었다고 전해짐

(2) : 현재 태안군 이원면 관리(官里)로 추정된다. 『서산군지』 (1927) 古事條.

(3) : 『서산군지』 (1927) 고사조(古事條).

(4) : 현재 태안군 남면 진산리(榛山里) 속칭 ‘장군벌[장문벌, 진벌]’로 추정된다. (黑松山 在南面 脈出泰安白華山 西南經同面南山里 爲本面榛山里 地形槩多平原小丘陵 更南走 作將門坪 古昔牧馬場遺址 …, 『서산군지』 (1927) 山岳條)

-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국마장은 모두 내포지방에 위치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폐(置廢)를 거듭하던 국마장은 숙종조를 고비로 전체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고, 충청도에서도 면천군의 창택곶 목장, 태안군의 이산곶 목장, 서산군의 대산곶 목장, 홍주목의 원산도 목장만 남았다.
- 폐지된 목장 토지는 조선후기, 특히 숙종조 이후 많은 분란을 야기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목장이 해변의 평탄한 지역에 있었던 관계로, 왕가를 비롯한 권력층들이 절수(折受)받으려 하였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전(屯田)으로 경작하려 하였으며, 주민들도 토지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숙종조에 폐지되어 왕가에 절수된 목장의 토지는 안면곶 목장 뿐인데, 나머지의 목장은 둔전으로 경작되었거나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목장 토지는 그후로 활발하게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 국마장 가운데 관심을 끄는 곳은 원산도 목장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고, 조선조에 국마장과 아울러 원산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령의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수군우후(水軍虞候)가 조운선(漕運船)의 호송을 책임졌던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이다.⁴⁷⁾ 이렇듯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까닭에, 숙종 42년(1716)에는 안흥원산창(安興元山倉)을 설치하고, 안면도의 둔세(屯稅)를 유치하여 섬주민들을 위한 환곡(還穀)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⁴⁸⁾

47) 「충청남도지」 (187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用川面 元山島에 있으며, 前水의 虞候가 있다. 매년 3월 초1일에 (漕船을) 護送하고 9월 초1일에 돌아와서 水營으로 간다. 甲寅年(1854)이 되어 巡營自辟軍官으로 元山別將을 삼아 호송도록 하였으나, 己巳年(1869)에 다시 別將을 혁파하고 水虞候로 하여금 예전처럼 별장의 예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호송의 책임을 전담하는 바, 사고가 발생하면 우후에게 책임을 논하게 된다.’

48) 「만기요람」 財用編 6, 諸倉 安興元山倉條. 이와 관련하여 원산도에 이웃한 삼시도가 국가에서 어린 사슴을 방목하던 곳이라는 점도 염두해 둘 만하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西海南部條.

3. 가야산의 불교유적

- 가야산 인근지역은 한국에서도 놓치기 어려운 불교유적의 보고이다. 특히 서해로 돌출한 태안반도는 선진문물의 유입통로로서는 안성맞춤이었으니, 그 대표적인 증거가 태안반도에서 충청남도 내륙으로 이어지는 마애불들이다. 특히 한국의 마애불은 내포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태안 백화산, 서산 운산면 용현리, 예산 삼교읍 용화산 등지의 마애불, 그리고 예산 봉산면 사면석불 등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 예산 덕산면 덕송산의 수덕사(修德寺)를 비롯한 말사(末寺)와 암자들, 남연군 묘역에 있었던 가야사지(伽耶寺址), 서산 운산면의 개심사·문수사·보원사지(普願寺址), 서산 해미면의 일락사, 서산 부석면의 간월암과 부석사, 홍성 용봉산의 용봉사와 광경사지, 보령 미산면 성주리의 성주사지 등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불교유적지들은 대부분 가야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도 군사적인 이유로 각 군현의 치소(治所)가 산록(山麓)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 비보사찰(裨補寺刹)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내포 고을의 불교 유적들이 가야산 일대에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바가 아니다.⁴⁹⁾
- 내포 마애불의 역사는 태안 백화산정에 서있는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부터 시작한다. 이 마애불은 높이 320cm로 조각 수법이 투박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2불 1보살’이라는 기이한 삼존(三尊) 구도를 하고 있어서 눈에 띈다. 현재 태안 백화산의 마애삼존불은 한국 마애불의 시원(始原)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야산 북쪽 용현계곡에 위치한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은, 한 고고학자에 의하여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되었으며, 백제화된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49) 이하의 논의는 최완수의 글에 많이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생략하였다. 최완수, 1994, 「名利巡禮」①②③, 대원사.

수준 높은 걸작품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수당불(隋唐佛)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산 봉산면 화전리의 사면석불, 예산 삼교읍 용화산의 마애불 등이 내륙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이다.

- 이러한 마애불들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잃고 금강 유역으로 천도한 후, 제해권을 회복하는 6세기경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보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남북조시대는 불교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던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가야산 일원에 널리 퍼져 있는 상왕(象王)에 대한 전설 또한 재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 백제시대 이래 가야산 일원에서 중흥한 불교는 수많은 명찰(名刹)들을 탄생시켰다. 그 중 예산 덕산면 덕숭산(德崇山)의 수덕사(修德寺)는 백제시대에 건축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인 대웅전(국보 제49호)이 남아 있다. 1934년 해체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대웅전은 1308년에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맞배지붕, 주심포, 평이한 빗살문 등에서 단순 소박하면서도 장중하고 엄숙한 멋을 잃지 않고 있으며, 측면의 기둥과 들보는 정제된 규격미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덕사는 특히 현대 불교의 중흥지로 지목되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선사의 고족 제자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다. 만공 선사는 결성 출신의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과 교유하면서 일본의 한국불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로, 수덕사에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 암자를 지어 살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그가 평생 기거했다는 소림초당(少林草堂), 교육장이었던 능인선원(能仁禪院)과 견성암(見性庵), 1924년에 조성된 용출관음석상(湧出觀音石像), 현대적 양식의 사리탑인 만공탑 등등은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자취들이다. 이와 함께 일찍이 『新女子』를 간행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명성을 쌓았던 일엽스님(金一葉, 1896-1971)이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견성암에서 출가하

였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수덕사 입구에는 아담한 초가의 수덕여관은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고암(顧菴) 이응로(李應魯) 화백의 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뜰에는 그의 문자추상화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다.

- 가야동 계곡은 덕산 읍내와 이웃하여 있다. 그 초입에 조성된 옥계저수지 북쪽 태봉은 곧 조선 현종의 태실이 있었던 유허(遺墟)이고, 그 서북쪽에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백형(伯兄) 흥녕군(興寧君) 이창응(李昌應)의 묘역이 있다. 다시 서쪽 저수지 끝자락 암벽[玉屏溪]에는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형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가야동 일대가 원래 그 집안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반쯤은 파묻혀 버린 옥병계에는 숙종조에 김진규가 새겼다는 ‘玉屏溪’, 성수심의 ‘水栽培’ 등의 글귀가 완연하다. 옥병계에서 서북쪽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한 남연군묘는 가야사(伽耶寺)의 옛터이다. 가야사는 본래 고려시대에 건립된 대가람이었다가 남연군묘를 이장하면서 폐사(廢寺)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한편 남연군묘를 이장한 후, 흥선대원군은 맞은편 서원산에 큰 아들[李載冕]을 시주자로 하여 보덕사(報德寺)라는 사찰을 창건했으나, 조선왕실의 마지막 원찰(願刹)이다. 남연군묘의 이장(移葬)으로 대표되는 풍수설에 얽힌 논란⁵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최근 들어서 풍수가인 육관대사가 남연군묘 서쪽에 자신의 묘역을 스스로 정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남연군묘는 이미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1998년 12월 29일에 가야사지가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었다.

- 남연군묘 반대편 북쪽 용현계곡[강당골]은 여름철 서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용현계곡 유원지이다. 이 계곡에는 국보 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사적 316호 보원사지(普願寺址) 및 당간지주를 비롯한 여러 점의 보물로 유명하다. 용현 계곡의 서산 마애삼존불상은 더 이상 거론할 필

50)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연군묘는 당시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택한 곳으로 이대천자지(二代天子之地)의 명당이라고 한다.

요가 없는 백제의 대표적인 인물조각상이다. 이 마애불을 만나기 위하여 계곡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서낭당처럼 돌무더기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서있는 미륵불과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이 미륵은 고려말 조선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평저수지가 축조되기 전에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 구 도로의 삼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계곡을 향하고 있었다 하여 구구한 해석이 전해지는 미륵님이다. 미륵과 헤어지자마자 조그만 시멘트 교량을 건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본래 도로는 개천 동편의 오솔길이었다 한다. 아무튼 현재 개천 서쪽편을 따라 나있는 길을 따라 약 300m를 더 가면 도로 서쪽편에 높다란 바위가 버티고 서있다. 인바위[印岩]라 하는 이 암벽은 전설 속의 상왕이 말[斗] 만한 인장을 숨겨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인바위 곁에는 길이 2m, 높이 50cm 정도의 조그만 바위[고양이바위]가 웅크린 자세로 엎드려 있는데, 보원사의 흥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주민들은 풍수설에 입각하여, ‘고양이바위는 개천 건너 숲 속에 있는 쥐바위와 상극인데, 두 바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하면서 보원사 일대의 모든 절이 망하게 되었다.’ 또는 ‘작은 암자 100개를 만드는 순간 두 곳이 서로 연결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바위 아래 개천으로 내려가면 개천 양편에 축대가 완연하게 남아 있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오솔길 중턱에 서있다. ‘백제인의 미소’라는 발견 당시의 평가에, ‘빛에 따라 부처의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등의 현대적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미 이 불상은 백제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마애불의 서남쪽 산중턱에는 둘레 약 3.5km의 큰 석성(石城)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이 성을 대성(大城)이라 부르며, 서쪽으로 보원사지(普願寺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⁵¹⁾

- 보원사지는 서산 마애삼존불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절터이다. 보원사는 현재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여래불상이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

51) 대성 아래 군자동(君子洞)은 원래 군장동(軍藏洞)으로 상왕이 군대를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정에 입각하여 백제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⁵²⁾ 보원사가 최초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신라 헌강왕 6년(880)이다. 보조선사장성탑비명에 의하면, 웅진인이었던 선사는 흥덕왕 2년(827)에 가랑협산 보원사에서 수구제하였다고 하니, 보원사는 그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듯하다. 부성태수(富城太守, 893년 부임)를 지냈던 최치원이 남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의하면, 웅주(熊州) 가야협(伽耶峽)의 보원사는 의상(義湘)을 계승한 화엄십사(華嚴十寺) 중의 하나였던 대가람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권 강화 이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원사의 사세(寺勢)는 크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법인국사 보승탑을 비롯한 유적들은 모두 고려시대 중건 당시의 것들로 추정되고 있다. 보원사는 화엄종이 약화되기 시작한 고려 무신정권 시기부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상왕산에 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佛宇條)의 기록으로 보아 폐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619년의 『호산록(湖山錄)』에는 이미 전우(殿宇)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 보원사는 1530년~1619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는 현재 석조(石槽, 보물 제102호),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인국사 보승탑(法印國師 寶乘塔, 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보승탑비(寶乘塔碑, 보물 제106호)가 남아 있다. 보원사가 있는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산 자락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터들이 산재해 있다. 전설에 등장하는 보원사에 속한 100번째의 암자라는 옥양봉 아래에 위치한 백암사지(白庵寺址) 등 용현계곡 안의 절터를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원평리 신사동과 의현동 일원의 절터,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현사지를 비롯한 용현리 보현동 일원의 절터 등은 상세한 조사를 기다리는 미답의 유적들이다.

52) 서산문화원, 1991, 『瑞山・泰安文化遺蹟』(上), p.p.512-520; 서산시, 1998, 『서산시지』 제7권 서산의 문화유적, p.p.160-168.

- 가야 연봉의 서쪽 사면 태봉리의 문수사(文殊寺)는 태봉리에 위치한다. 태봉리(胎封里)는 명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7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기(伏藏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46년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밝혀졌지만, 『호산록』에는 이미 폐사되었다고 하니 보원사와 홍망을 같이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수사의 창건연대는 불명확하며, 현 건물과 유물은 모두 16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극락보전은 주심포계와 다포계를 정충한 맞배지붕의 건물로 지붕이 들려 있는 듯한 인상의 조선 후기 건물이다. 그 안에는 1346년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불좌상,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나한상, 1774년 제작된 지장보살도, 1892년 김금어가 제작한 신장정화(神將幀畵) 등이 소장되어 있다.
- 개심사는 문수사 남쪽에 위치한 고찰이다. 일제시대의 기록에는 수령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피나무·밤나무·참나무·모감주나무·향나무·단풍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고 했으나,⁵³⁾ 옛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방문객들을 반기는 것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솔향과 쪽쪽 뻗은 적송(赤松)들의 고운 자태이다. 호젓한 길을 지나 경내로 접어들라치면 굽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종루(鐘樓)와 마주하게 된다. 온통 굽은 나무로만 지은 듯한 심검당(尋劍堂,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의 진면목을 먼저 엿보게 하는 건물이다. 심검당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굽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멋을 간직하고 있다. 개심사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매력인 곳이다. 그리고 개심사에는 대웅전(보물 제143호),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보물 제1264호), 명부전(冥府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심검당 등의 문화재가 있지만, 정작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41년 대웅전을 해체수리할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484년에 대웅전을 중창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53) 『서산군지』 (1927).

- 한편 개심사는 왕비와 부마도위를 배출하고 김정희라는 큰 학자를 낳았던 경주김씨와의 인연이 깊은 사찰이기도 하다. 속칭 ‘한다리[大橋] 김씨’라고 부르는 일가와의 인연은 김연(金堧, 1494~?)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계모 황씨의 고향인 한다리에 터를 잡았고, 그의 증손 김홍욱(金弘郁, 1602~1654)대에 이르러서 명문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현손대에 이르러 김한신(金漢蓁, 月城尉)은 영조의 따님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혼인하는 한편, 8촌 형제인 김한구(金漢耆)의 장녀가 영조의 계비(繼妃, 貞純王后)가 되니, 한다리김씨는 왕실과 연혼을 맺은 내외척(內外戚)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는 바로 월성위의 증손이다. 한다리 김씨와 개심사와의 인연은 이주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김연의 계모 황씨의 묘소가 개심사의 내청룡에 해당되는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철종대의 개심사 중창에는 김씨 일문이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김홍욱을 비롯한 김적(金積)의 4아들의 후손들이 모두 불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요, 상궁(尙宮) 우씨와 함께 서산군수와 당진현감이 시주로 있었다는 사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 일락사는 해미읍성 뒤편에 위치한 사찰이다. 일락사에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양식인 3층석탑이 있으나, 막상 창건연대는 불확실하다. 다만 1649년 해미읍성을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을 함께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 현재 해미읍성은 천주교도의 순교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왜구와 해적들이 준동하던 조선 태종 14년(1414) 가야산 너머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절도사영을 해미로 이설하였고, 효종 2년(1651) 다시 청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충청도 서해안의 중심 군사 요충지였던 곳이다. 현 해미읍성에서 서북쪽으로 서산까지 뻗은 국도변에 위치한 반양리에는 구해미[또는 반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2km 지점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고 하니, 해미읍성은 육지와 바다를 겸할 목적으로 가야산을 등져서 설치된 군사시설로 보아 틀림이 없을 듯하다.

그리고 1649년의 일락사 증수도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 한편 일락사로 가는 황락리에도 미륵이 서있거니와, 조산리와 반양리에도 미륵이 있고, 얼마 전에 분실되기 전까지도 가야산 증턱 산수리에도 있어서 미륵불을 보기 위하여 해미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민속학계에서는 주민들의 전언을 그대로 믿고,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4방향에 세워진 비보장승이며,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비보(裨補)를 위하여 세워졌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막상 최근의 공동의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반양리 미륵이 있었던 곳에서는 사찰이 건립되었고, 조산리 미륵이 있는 곳에는 매년 두 차례씩 무속인들이 찾아와 굿판을 벌인다. 황락리 미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산수리에서는 산수저수지 축조와 함께 마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와중에 분실되었다. 가야산 주변에 부지기수로 흩어져 있는 미륵들에 관해서도 최소한 실태조사는 있어야 될 것이다.

4. 내포의 기타 유적

- 내포 지방은 조선 후기 상업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보부상(裨負商) 관련 유품의 보고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부상(裨負商)을 상무사(商務社)로 조직하였다. 당시 도자기·소금·어물 등을 취급하는 부상(負商, 등짐장수)은 좌사(左社)로, 직물·철기 등을 취급했던 보상(裨商, 방물장수)은 우사(右社)가 되었다. 현재 내포에는 상무사의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의 권역은 예산, 덕산, 면천, 당진이고,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는 홍주,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을 아우르며, 저산팔읍상무사(苴産八邑商務社)는 부여, 홍산,

남포, 비인, 서천, 한산, 임천 6개 고을의 시장을 관할하였다. 위의 3개 상무사 조직이 관할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산, 해미, 태안만이 제외되었을 뿐으로, 내포라 통칭되던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내포지역은 시장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라 할 수 있다.

- 그 가운데 원홍주육군상무사의 경우, 1851년 한성부(漢城府)의 공문(公文)에 의거하여 결성·보령·청양·대홍 등과 함께 元洪州六郡商務社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1900년 당시 홍주는 인구 1,500의 큰 고을[大邑]로서 예산장에 필적하는 대장(大場)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며,⁵⁴⁾ 육지의 다양한 품목, 그리고 광천 등지에서 유입되는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종합시장적 성격을 띠고, 주변의 작은 정기시장[小場]으로 출하시키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상무사의 관할에 속했던 옛 홍주목의 포구로서의 광천장의 경우, 충청도에서는 금강의 강경에 다음 가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여,⁵⁵⁾ 포구[용암포]까지에도 오일장이 개시되면서 2일간 연속 장이 서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광천에서는 주로 해산물 도매 교역량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당시 인근에서는 홍주장→백야장→용호장→광천장→결성장으로 이어지는, 홍주와 광천이라는 2개의 대장(大場)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장(小場)을 연결하는 순회 장길이 형성되었다. 현재 이 상무사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유품 현황은 아래의 < 표 5 >와 같으며, 예덕상무사와 저산팔읍상무사와 관련 유품도 일괄 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 표 6 > 참조)

< 표 5 > 元洪州六郡商務右社の 관련 유품

지정어부	名 稱	所 在 地	指定日	관리자
重要民俗資料 제30호	樺負商遺品(一括 19種)	廣川邑 新津里455-5	92. 7.28	金東物
비지정	樺負商遺品(一括 36種)			상무사

54) 『通商彙纂』 179호(1900. 10) 「韓國京畿忠清兩道內地情況」 p.67.

55) 『日省錄』 정조 23년(1799) 5월 9일.

< 표 6 > 예덕 및 저산팔음상무사 관련 유물

구 분	지정여부	名 稱	所 在 地	指定日	관리자
예덕	重要民俗資料 제21호	樛負商遺品 (一括 26種)	덕산면 보부상 기념관	73. 7.16	상무사
저산팔음	重要民俗資料 제30호	樛負商遺品(1) (一括 4種 8點)		73. 7.16	國立扶餘 博物館
	重要民俗資料 제30호	樛負商遺品(3) (一括 4種 107點)	林川面 塔山里 546	80.11.29	黃仁喆

- 해미읍성은 한국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읍성(邑城)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상 해미읍성을 들어서는 방문객의 감회에는 근대사의 남다름이 있다. 통칭 ‘내포교회’라 불리는 충청남도 중서부 지역에서 흔히 ‘솔피[당진군 연천면 송산리]는 신앙의 못[苗]자리’라고 하는 반면에, ‘해미는 신앙의 밭[墓]자리’라고 전해지게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내포의 천주교는 안중 - 공세리 - 예산 - 합덕 - 공주의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한다. 내포교회는 한국에서도 천주교회의 가장 활발한 전교지역이었으니, 그 중심지가 합덕 본당이었으며, 전교 만큼이나 박해가 심했으니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곳이 바로 해미읍성이었다.
- 이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이는 이존창(1752~1801)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786년부터 내포지방의 전교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01년 공주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증조부 김진후(金震厚) 역시 이존창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김대건 신부(1821~1846)는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증조부가 입교한 이래 대대로 천주교를 믿게 되었으니, 아버지 김제준(金濟俊)은 1827년 기해사옥 때에 순교하였다. 프랑스 신부 모방의 주선으로 마카오의 신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1845년에 최초로 신부의 서품을 받고 전도에 힘쓰다가 1846년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처형되었다.

- 이러한 가운데 1861년에 이미 상부내포(上部內浦)와 하부내포의 두 본당이 설립되는 등 활동이 활발하였고, 그 결과 병인박해에는 187명이라는 대규모의 순교자를 낳았다. 1890년에는 두세 신부의 활동으로 양촌(陽村,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과 간양골 본당이 설립되었다가 1894년에는 간양골 본당이 양촌 본당에 병합되었다. 양촌 본당은 1899년 합덕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한국의 총 165개 본당 가운데 10번째에 설립된 곳이다. 합덕 본당이 충청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후대에 설립되는 공세리·공주·금사리·수곡 본당 등의 관할 구역이 본래 양촌 본당에서 관할하였다는 사실로서 짐작이 된다. 이러한 결과 합덕 본당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도자와 사제를 배출하게 되었다.
- 이러한 교세 때문에 내포에는 수많은 천주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한국 최초의 영세자였던 이승훈이 예산으로 유배되면서 인근의 여사울[如斯洞,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공소가 창립되었다. 내포지방 천주교 전도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이존창의 활동무대가 바로 이곳이니, 천주교측으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군 우장면 송산리 솔피 마을은 이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1977년 이후 기념비와 동상을 건립하는 등 천주교 성지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가로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은 실학자 이가환(李家煥)은 고덕면 상장리 장사래 마을 사람으로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이가환은 성호 이익 선생의 종손자로 천문학과 수학에 능했던 인물이다. 백서(帛書) 사건으로 유명한 황사영의 거주지는 덕산면 황모리이며, 또한 정약용 집안과 사돈간이다. 이외에도 내포지방의 어머니 본당으로 꼽히는 (구)합덕 본당, 한국 카톨릭 교회사를 집필하였던 신리 등 곳곳에 산재한 공소들, 이외는 반대로 순교처로 유명한 해미읍성과 주변의 유적지, 보령 갈매꽃 등등 천주교 유적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권역에 포함된 천주교 성지 현황은 아래의 < 표 7 >와 같다.

< 표 7 > 천주교 성지 현황

성지	소재지	현황
갈매못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 9-53	1985년 9월에 5명의 순교성인 기념비와 야외 제단 세움
솔외 성지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114	1946년 성역화 사업 시작 6월 4일 순교기념비 건립 1977년 동상과 기념탑을 건립 1983년에 솔외 피정의 집 완공
신리 공소	당진군 합덕읍 신리	1927년 순교 기념비를 건립 순교 복자 기념비와 성모상 있음
이존창 생가터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여술)	1984년 가을에 신례원 본당에서 구전을 토대로 여사울의 생가 터를 찾음
합덕성당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275	1890년에 설립, 1899년 현위치로 이전하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1929년에 준공
해미성지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12-8	읍성에는 교우들이 간헐 있던 감옥터, 고문대로 쓰던 ‘호야나무’가 남아 있음
홍주 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읍성 내에는 신자들을 고문하고 혹은 처형지로 사용된 감옥 터, 객사, 동헌 등이 있음

기타 처형지 및 순교자 무덤	
처형지	德山, 沔川, 大興, 禮山
순교자 무덤	신평 성당 무명순교자 묘

순교자의 출생지와 교우촌	
예산	여사울 · 간양골 · 수철리
면천	개안말, 농바위 점, 원마루,
홍주	신리, 길아들기, 원모리, 옥금재,대전골, 서면, 엄섬리, 중안이, 통포안
덕산	황무실, 섬라(烏村), 가야산 밑, 개간실, 가(개)야골, 거동리, 구례골, 봉명골, 살다리, 신프런, 황금리
서산	강당리, 용나인
병헌 박해 때의 교우촌	
· 결성 : 성머리(金化숙 베드로), 덕머리 · 해미 : 삼진리, 원벌, 역말, 이문, 장생동	

- 동학은 내부적으로 조선왕조의 몰락을 특징짓는 일대 민중운동으로 평가받는다. 단순한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이념의 시작으로 평가받으며, 현실적으로도 동학혁명 운동으로 인하여 조선왕조가 몰락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동학은 최제우에 의하여 창제되었으며, 전봉준의 기치 아래 전라도를 중심으로 체제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상도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하나의 논란거리이며, 충청도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영도 아래에 있었던 충청도의 동학, 즉 북접(北接)은 봉기에 반대하고 나아가서 남접을 공략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 그런데 경상도 동학의 움직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충청도에서도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한말 대표적인 의병운동이었던 홍주의병 자체가 홍주를 중심으로 한 동학운동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⁵⁶⁾ 동학 당시 활동했던 인물로는 박인호·박덕칠(박회인)·손병희 외에 면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창구(李昌九)·한명순·박용태 등이 있다고 한다. 1894년 4월에 면천에서 기포하여 같은 해 10월에는 합덕 성동산성, 당진읍 구룡리 송전목, 당진 송악면 송악산 등지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으며, 한때 이창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교도들의 활동으로 조운(漕運)이 불통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동학운동이 좌절된 이후에는 내포의 난지도를 중심으로 활빈당(活貧黨) 활동을 벌였으며, 홍주의병으로 대거 흡수되었다고 한다.

56) 이하의 구체적인 사실은 이인화의 글에 주로 의존하였다. 이인화, 「내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당진문화원, 『당진향토문화논총』 17집, 1997. 이 글은 기초조사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현재 내포지방의 동학운동은 일부 향토사가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발굴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내포에서 동학도들이 최초로 집결하였다고 하는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 마을, 동학도들이 훈련받았다고 전해지는 용현리 보원사지, 지금까지 단군전이 소재한 운산면 와우리, 승전목·성동산성·송악산 등과 같은 전적지 등이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유적지에 관한 자세한 검토가 미미한 형편이며, 미발굴의 유적지가 더 많은 실정이다.

IV.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성격

- 애당초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에 속하는 내포지방에 대한 기초연구의 방향을 잡음에 있어서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춘 탓에⁵⁷⁾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방향은 문화재 정비 및 관광자원화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고, 그와 연계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은 크게 ① 정신문화 창달사업, ② 문화유적 정비사업, ③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④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구분되었다. 정신문화 창달사업에는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한성준 민속무용전수관 건립, 결성농요 전수관 건립, 기지시 줄다리기 시현장 조성 등 4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문화재 지정 등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은 대부분 포함되었다.⁵⁸⁾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에는 간월도 관광지, 신두사구 생태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황도 관광지, 창리 관광지 등 5개소이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 7개소의 도로공사로서, 4개소는 단순한 진입로 공사이며, 그 외로 서산 마애삼존불과 남연군묘 등

57) 참고,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9. 4.

58)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남연군묘, 해미읍성, 천주교 순례지, 임존성, 대흥동헌 및 효제비각, 태안읍성, 대련사, 홍주성, 개심사, 솔피성지, 오현성,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생가지, 봉산사면석불, 한국사지, 갈매곶성지, 안흥성, 소근전성, 면천읍성, 합덕재, 보령읍성, 노은서원, 백화산성, 명종대왕태실, 우사고택 및 화암사 등이다. 여기에는 용현계곡 문화재 편의시설, 화석전시관 및 고인돌공원 조성,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3개소에 전시관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또는 조성사업이 포함되었다.

가야산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로, 내포지역을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횡단하는 국도의 확포장, 간월호 복단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권역은 세부적으로 ① 가야산권, ② 해양권, ③ 북부권, 그리고 ④ 내륙권으로 구분된다. 가야산권은 백제 마애불 등 불교 관련 유적을 정비하되, 온천 등 기존 도심의 시설을 활용하여 내포문화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해양권은 해변에 분포하는 역사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북부권은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자연 및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위락·휴양형 관광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내륙권은 옛 내포의 중심지로서 역사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 사업추진은 3단계로 나뉘어 2005~2007년 1단계에 16개 사업, 2008~2010년 2단계에 15개 사업, 3단계(2011~2014)에 15개 사업이 배정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의 < 표 8 >과 같다.

< 표 8 > 단계별·분야별 추진사업 현황

단계별	사업량	분 야 별 추 진 계 획
1 단계	1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문화 (2):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결성농요 전수회관 · 문화유적(11): 해미읍성, 임존성, 홍주성, 보원사지, 추사고택, 화석전시관정비 마애삼존불, 내포보무상존, 개심사, 봉산사면석불, 안국사 정비 · 관광휴양 (1): 간월도관광지 · 기반시설 (2): 가야산순환도로, 갈매못성지 진입도로
2 단계	1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문화 (1): 한성준민속무용 전수관 · 문화유적(10): 면천읍성, 한용운 생가, 대흥동헌·효제비, 오천성, 김좌진 생가 노은서원, 맥화산성, 안흥성정비, 남연군묘(가야사지), 태안읍성 · 관광휴양 (2): 신두사구생태공원, 봉수산자연휴양림 · 기반시설 (2): 간월호 관광도로, 개심사 진입도로
3 단계	1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문화 (1): 박침지놀이 전수회관 · 문화유적 (9): 가야산사적지 주변정비, 슬피성지, 함덕제, 대련사, 보령읍성 소근진성, 명종태실, 천주교 순례지, 갈매못성지 · 관광휴양 (2): 황도관광지, 창리관광지 · 기반시설 (3): 대련사 진입도로, 명종태실 진입도로, 내포권연계도로

- 총 사업비는 1,050,577백만원 가운데 450,805백만원은 국비이며, 지방비는 525,805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충청남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국비 450,805백만원의 확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낙후된 지역에 4,5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은 성공적이라 자평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향후 집중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연안이 사업대상지가 되었으므로, 개발에 따른 훼손 이전에 보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도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것이다.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용역의 발주처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이었으며, 계획서 확정 후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사업의 대부분은 문화재 관련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졌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과 직접 연관된 예산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문화 창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시관 또는 시현장 건립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전부이다.
- 두 번째의 특징은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을 듯하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특정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 사업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었던 까닭에 사업 상호간의 연계성은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이 채택되었으므로,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는 향후의 과제로 남은 셈이 되었다.
- 세 번째로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의 과제는 사업권역에서 제외된 주변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의 부분이다. 문화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엄격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문화권의 경계를 확정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 또는 사회적 교섭 범위가 행정구역처럼 명쾌하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점이지역처럼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뜻이다.

- 네 번째로 개발권역 내에서 제외된 일부 읍·면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태안·당진 등의 일부 읍·면은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활용 가능한 역사 또는 자연자원이 부각될 가능성은 크며, 특히 가로림만의 생태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V. 향후의 과제

- 충청남도의 낙후된 시·군이 밀집한 내포 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실상 시작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잠재력을 갖춘 자원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도 서해안 해수욕장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이해는 어렵지 않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원활한 사업 수행과 새롭게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이다.
-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하여야 할 부분은 철저한 기초조사의 시행이다. 개발사업의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 필자로서는 기초적인 연구작업의 불철저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단편적인 문헌조사, 향토사가들의 제보에 의존한 답사, 피상적인 관련 연구의 검토 등은 모두 스스로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다. 물론 개발사업의 추진이 알려지면서 일부 대학의 주도로 연구단을 결성하여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특히 새로운 자원 또는 사실의 발굴에 대

해서는 미진한 감을 지을 수 없다. 내포 최대의 갯벌자원이 있는 가로림만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태안·서산의 여러 운하유적, 보물 제 5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군 삼교읍의 석조보살입상(石造菩薩立像) 등등 누락된 문화유산은 소수가 아니다. 앞서 'Ⅲ. 내포지방의 문화유산'에서 살펴보았듯이, 내포 주민들에게조차 낯선 문화유산들은 결코 적지가 않다. 이 모두 새롭게 확인되어야 할 문화유산들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사안은 정비대상 문화유산의 편중성이다. 무형의 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형의 자원 가운데, 예를 들어 성곽에 대한 정비사업은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굳이 우리 나라가 산성(山城)의 나라라는 평가를 거론한다 하지 않더라도, 전국 곳곳에 성곽이 분포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옛 성곽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31개소이고, 그 가운데 성곽의 정비가 무려 10개소이다. 내포지역만이 아니라, 최근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민속마을의 성공 사례에 고무된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곽정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곽정비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관건은 아니다. 해미읍성은 읍성축제의 활성화, 낙안읍성은 음식축제 등의 성공으로 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건은 내방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셈이다. 물론 나름대로 활용 가능한 관련 자원의 잠재력은 큰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임존성의 경우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성곽 자체의 정비사업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성곽보수에 부여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곽정비사업은 그 첫 단추에 불과할 뿐이며,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초조사와 아울러 관련 연구의 심화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원간의 연계효과, 관련 문화 콘텐츠의 확보 등등은 모두 심화된 연구성과에 의존하여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포지역의 중심 읍성이라 할 수 있는 홍주읍성의 복원정비사업이 사업에 포함되었고, 홍성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읍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가신묘(洪可臣廟) 관련 의례에 대한 고증, 홍주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동학전쟁과 홍주의 병의 활동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읍성이 복원되었다고 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읍성과 관련된 의례 또는 사건 등등의 자원이야말로 관련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예산 보부상촌 조성사업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내포 지역에는 예덕상무사외에도 원홍주육군상무사 및 저산팔읍상무사의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간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홍주육군상무사의 관련 유물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저산팔읍상무사는 이미 활성화된 한산모시제의 주요 부분에 속하고 은산별신제와의 관련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⁵⁹⁾ 연구의 심화와 동시에 이미 착수된 여타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 사실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고찰인 수덕사 관련 계획이 배제되어 있다.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이제는 사업간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가야산록의 대표적인 불교유산인 서산마애삼존불,

59) 이필영, 2002,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同, 2003, 「부형문화재 정책의 근원적 문제」, 『역사민속학』 제16집; 줄고,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同, 2003,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관리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보원사지, 개심사 등의 개발사업과 수덕사 정비계획이 연계되지 못한
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문화재의 정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람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자원 상호간의 연계를 유지함이 문화자원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교육과 홍보는 지역민의 문화적 정체성
의 확립과 외부 관광객의 유치전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대중에 적합한 책자의 간행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행사 또한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연구성과를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작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층을 위한 교육교재, 외부인에게 내포지역의 문화적 경
쟁력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교양
서적’ 수준의 소개책자가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관련 사진과 접근로
를 표시하여 직접 유적지를 방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가 효
과가 크리라 판단된다.